

재즈를 듣다 15

명가수

글. 이기현 재즈 칼럼니스트



엘라 피츠제럴드의 앨범들

‘재즈 스탠다드(Jazz Standard)’라는 말이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주 연주돼 연주자와 재즈팬에게 익숙한 선율을 가리킨다. 처음부터 재즈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팝송, 뮤지컬, 영화 음악 등 원래는 재즈가 아니었던 선율을 가져와 연주에 사용한 곡 목이 뒤섞여 있어,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여름날(Summertime)’, ‘나의 우스운 발렌타인 인형(My funny valentine)’, ‘자정 무렵(Round Midnight)’ ‘나를 달에 보내줘요(Fly me to the Moon)’, ‘내가 좋아하는 것들(My favorite thing)’ 등... 무수히 많은 곡이 여기에 속한다. 다른 음악 장르와 달리 재즈는 기악이 중심이긴 하지만 재즈 스탠다드는 대부분 가사가 있어 재즈 가수의 영역이기도 하다.

보통 재즈 보컬의 시작을 루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부터라고 한다.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 미성이 아닌 개성 있는 목소리와 창법, 둘째, 스캇(Scat)의 원조라는 점이다. 스캇은 가사와 무관한 의미 없는 말로 즉흥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노래하다 가사를 까먹는 바람에 대충 얼버무리던 것이 하나의 테크닉으로 완성됐다는 설이 있다.

엘라 피츠제럴드(Ella Fitzgerald)는 스캇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 올린 명가수다. 사보이 볼룸(Savoy Ballroom)은 ‘린디 홉(Lindy Hop)’이란 춤이 추어졌던 대표적인 장소이다. 엘라는 이곳에서 최고 인기 밴드를 이끌던 드러머 칩 웹(Chick Webb)에 의해 공식 데뷔를 했다. 처음엔 덩치가 크고 미모가 떨어져 채용할 생각이 없었는데 노래를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생각을 바꿨다고 한다. 타고난 미성과 기교, 엄격한 자기 관리를 통해 오랜 세월 장수한 ‘재즈의 여왕(Queen of Jazz)’이었다. 수많은 명반을 남겼지만 개인적으로는 ‘엘라와 루이(Ella & Louis)’, ‘조지 & 아이라 거쉰 송북(Ella Fitzgerald Sings The George And Ira Gershwin Song Book)’, ‘콜 포터 송북(Ella Fitzgerald Sings The Cole Porter Songbook)’을 꼽는다.

1997년 개봉된 영화 ‘접속’은 시간이 흐를수록 PC 통신 세대로서 아련한 느낌을 더한다. 국내에선 PC 통신을 소재로 한 사실상 유일한 영화가 아닐까 한다. 영화의 성공



사라 본의 앨범들



으로 인해 국내에서 벨벳언더그라운드(Velvet Underground)의 ‘창백한 푸른 눈(Pale Blue Eyes)’과 사라 본(Sarah Vaughan)이 부른 ‘연인의 콘체르토(A Lovers Concerto)’가 한동안 유행했다. 그녀는 1942년에 얼 하인즈(Earl Hines) 밴드 보컬로 데뷔했다. 엘라의 목소리가 타고난 미성이라면 사라는 풍부한 성량이 감동적이다. 개인적으로는 ‘클리포드 브라운과 함께(Sarah Vaughan Featuring Clifford Brown)’, ‘하이파이의 땅(In The Land Of Hi Fi)’, ‘퇴근 후(After Hours)’ 등을 특별히 기억한다.

빌리 홀리데이(Billie Holiday)는 미성이거나 성량이 풍부하거나 음역이 넓지도 않건만 재즈 역사상 최고 싱어로 손꼽힌다. 창녀의 자식으로 태어나 본인도 창녀의 삶을 살기도 했고, 최고 디바로서 활동하던 중 불과 44세의 나이에 마약 중독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비극적 삶의 무게를 타고난 천재성에 실어 노래한 덕분이 아닌가 싶다. ‘이상한 열매(= Strange fruit)’는 빌리 홀리데이가 불러 전설이 된 노래다. 백인 주인에 의해 죽임을 당해 나무에 매달린 흑인 노예를 이상한 열매로 은유한 내용이다. 1990년대 초중반 무렵엔 ‘공단 옷을 입은 숙녀(Lady in Satin)’라는 음반 수록곡인 ‘너를 원한 내가 바보다(I’m a fool to want you)’라는 노래가 구두 광고 배경 음악으로 사용되며 국내에서 다소 비정상적인 재즈 열풍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다. 이 음반이 녹음된 해는 1958년이다. 비참하기 이를 데 없던 말년

빌리 홀리데이의 앨범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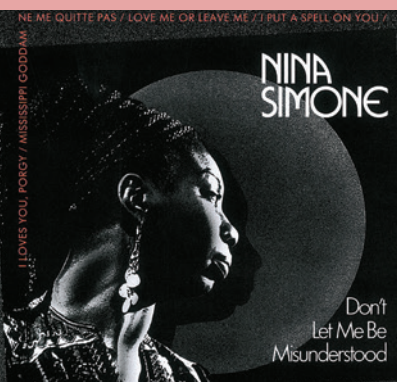
에 마지막 에너지를 짜내듯 노래한 뒤 이듬해 약물 중독에 의한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던 재즈팬들에겐 상업 광고가 이용한 게 조금 불편했다. 하지만 덕분에 재즈 관련 서적이 크게 늘어났고 재즈팬층 역시 넓어졌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적으로는 ‘숙녀가 블루스를 노래하네(Lady Sings the Blues)’, ‘몸과 영혼(Body And Soul)’, ‘레이디 데이(Lady Day)’를 최고 명반으로 기억한다.



디나 워싱턴의 앨범들

지금 소개한 빌리 홀리데이, 사라 본, 엘라 피츠제럴드를 보통 ‘3대 디바’라고 한다.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활동 시기가 주로 1930~60년대라 그 이후에 등장한 명가수들이 다소 묻히는 듯해 이제는 좀 지양해야지 않나 싶긴 하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가수 중에도 주목할 만한 가수가 여럿 있다. 디나 워싱턴(Dinah Washington)도 그중 하나다.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그녀를 비브라폰 연주자인 라이오넬 햄프턴(Lionel Hampton)이 발굴해 데뷔시켰다고 한다. 재즈뿐만 아니라 리듬앤블루스 가수로서도 명성을 떨쳤고, 무엇보다 ‘하루가 바뀐 것(What a Difference a Day Made)’이란 노래로 유명해졌다. 하지만 서른아홉 나이에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 대표 음반으로는 ‘사랑에 빠진 이들을 위해(For those in love)’, ‘스윙하는 미스 D(The Swingin’ Miss ‘D’)’ 등이 있다.

1995년 개봉한 ‘비포 선라이즈’(Before Sunrise)의 후속작으로 2004년 개봉한 ‘비포 섯’(Before Sunset) 마지막 장면에서 니나 시몬(Nina Simone)이 부른 ‘제 시간에(Just in time)’란 곡과 함께 여주인공이 다음과 같은 대사를 한다. “니나 시몬 콘서트 가봤어? 난 콘서트 두 번 가봤어. 너무 멋져. 콘서트도 참 재밌었어. 피아노 치며 노래하다 갑자기 멈춰선 무대 끝으로 걸어 나와, 아주 천천히... 그러곤 관객에게 말을 걸어. 그리고 천천히 피아노로 돌아가. 귀엽고 큰 엉덩이를 흔들면서. 그러곤 연주를 계속해”. 어린 시절 희망이 클래식 피아니스트였던 만큼 피아노 연주 또한 뛰어났다. 또한 흑인민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의 기수로서도 큰 역할을 했다. 국내에선 ‘날 오해하지 말기를(Don’t Let Me Be Misunderstood)’이란 음반이 라이선스로 판매돼 많은 재즈팬들에게 친숙하다. 이외 대표 음반으로는 (훗날 그녀의 별명이 된) ‘소울의 제사장(High Priestess of Soul)’, ‘실크 앤 소울(Silk & Soul)’ 등이 있다.



니나 시몬의 앨범들





에비 링컨의 앨범들



에비 링컨(Abbey Lincoln)은 빌리 홀리데이 영향을 받은 가수다. 남편이 드러머 맥스 로치(Max Roach)였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음반 ‘우리는 주장한다(We Insist!)’에서 흑인 인권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담았다. 이외 대표 음반으로 빌리 홀리데이를 향한 오마주를 담은 ‘에비가 빌리를 노래한다(Abbey Sings Billie)’를 비롯, ‘에비는 우울해(Abbey Is Blue)’, ‘꾸밈없는(Straight Ahead)’ 등이 있다.

페기 리(Peggy Lee)는 1941년 베니 굿만 악단에 발탁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백인 여가수다. 대표곡으로는 역시 ‘열정(Fever)’을 들 수 있겠다. 대표 음반으로는 ‘꿈의 거리(Dream Street)’, ‘내가 사랑한 남자(The Man I Love)’ 등이 있다. 일본 만화 영화 ‘차이언트 로보’에 ‘그레타 가르보’ 이름을 딴 비행선이 나오듯, ‘페기 리’란 이름이 건담 시리즈에 등장한다.



페기 리의 앨범들



아니타 오데이의 앨범

2007년에 ‘아니타 오데이 - 재즈 가수의 일생(Anita O’Day - The Life of a Jazz Singer)’이란 다큐멘터리가 개봉했다. 제목에서 보듯 백인 재즈 가수인 아니타 오데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빅밴드에서 여성가수가 해야만 했던 전형적인 바람잡이 역할을 거부하고 당당한 밴드 일원으로 진 크루파, 우디 허먼, 스티븐 켄턴 악단에서 활약한 뮤지션이었다. 여타 재즈 연주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헤로인으로 고통받았으나 80세를 넘기며 장수했다. 대표 음반으로는 ‘이것이 아니타다(This Is Anita)’, ‘아니타



준 크리스티의 앨범



재즈 뮤지컬 '진정한 대사'

오데이가 빌리 메이 밴드와 함께 콜 포터를 부른다(Anita O'Day Swings Cole Porter with Billy May)' 등이 있다.

준 크리스티(June Christy)는 아니타 오데이에 이어 스탠 켄턴 악단에서 활약한 가수였다. 특히 일본에서 인기를 누렸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무라카미 하루키 재즈 에세이를 통해 이분을 새삼 주목했다. 대표 음반은 '멋진 것(Something Cool)'이다.

끝으로 사심을 담아 '진정한 대사(The Real Ambassadors)'라는, 1962년에 발표한 음반을 한 장 소개하려 한다. 데이브 브루벡(Dabe Brubeck) 및 이올라 브루벡(Iola Brubeck)이 함께 만든 재즈 뮤지컬이다. 이 역시 흑인민권운동, 음악 산업, 냉전 시대의 미국 등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처음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루이 암스트롱, 램버트, 헨드릭스 & 로스(Lambert, Hendricks & Ross) 트리오, 카르멘 맥래(Carmen McRae) 등이 나오는 올스타 음반인 줄로만 알았다. 사심을 담았다고 한 이유는 1990년대에 내가 자주 나갔던 '재즈 트랙트'라는 소모임에서 이 음반을 처음 접했기 때문이다. 음악을 듣자마자 너무 좋아 곧바로 음반 가게를 수소문해 구매했던 기억이 새롭다. 덕분에 지금은 30여 년 전,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음반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여름 노래(Summer Song)'란 곡이 옛 향수를 자극한다. 🎧



다른 음악 장르와 달리 재즈는 기악이 중심이긴 하지만 재즈 스탠다드는 대부분 가사가 있어 재즈 가수의 영역이기도 하다.



엘라 피츠제럴드
'썸머타임'



사라 본
'연인의 콘테르토'



빌리 홀리데이
'이상한 열매'



빌리 홀리데이
'나를 위한 내가 바보다'



디나 워싱턴
'하루가 바꾼 것'



니나 시몬
'날 오해하지 말기를'



애비 링컨
'꾸밈 없는'



아니타 오데이
'아니타 오데이가 빌리
메이 밴드와 함께
콜 포터를 부른다'



페기 리 '열정'



준 크리스티
'멋진 것'



재즈 뮤지컬
'진정한 대사'